

대대로 이어갈 우리가정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는 (찬송가 556장)

나는 여섯 살 때 들은 고모님의 찬송소리가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 전쟁 통 부모님을 잃고 슬퍼하던 나는 고모님 품에 안겨 '찬송하는 소리 있어 거룩 거룩 하외다' 찬송소리를 자장가로 들으며 잠이 들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탄 근심 있으랴'하며 흥얼거리며, 칙칙한 피난 살림에 밤새워 제품을 만들면서도 이른 새벽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를 행진곡처럼 부르며 나가시는 모습을 보며 자랐다. 십 수 년 전, 고모님을 하나님의 나라로 떠나보내고서야 비로소 어릴 적 들었던 이 모든 찬송 가락들이 내게 남겨진 세상 어느 것보다 귀한 최고의 유산(遺産)임을 알았다. 나는 묘비석(墓碑石)에 내 귀에 쟁쟁 남은 찬송 가사를 새겼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라고, 우리가족은 매 추석 때마다 공원묘지에서 이 찬송을 부른다.

어느 교사가 강의시간에 학생들에게 물었다.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구지?" "그럼, 이삭의 아들은?" "야곱의 아들은?" 학생들은 요셉과 그의 열두 형제 이름까지 다 대면서 너무나도 유치한 질문이라는 표정을 짓더라. 교사는 종이를 학생들에게 나누어 주고 부모님의 성함과 친가와 외가 조부모님의 성함을 적으라고 했다. 유대인의 조상을 그토록 줄줄 꿰 찬 그들의 결과는 과연 어땠을까.

가을 추수를 끝내고 햅쌀과 햇과일로 감사한 마음으로 조상들을 기억하며 고향을 방문하고 성묘를 하는 추석 한가위 전통은 민족의 명절로서 유대인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초막절과도 같다. 한식이나 추석 등 일 년에 한 두 차례 온 가족이 한자리에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음식을 나누고 어르신들의 옛 이야기를 듣는다. 늘 반복되는 이야기일지라도 자기 존재와 뿌리에 대한 생각과 효(孝)를 몸으로 배우며 가족 공동체로서의 행복을 누리는 시간이다. 유대인들이 지키는 절기마다 믿음의 조상을 기억하며 그들 나라의 역사와 민족정신을 대대손손 가르치듯, 기독교적 가치관과 정신이 살아있는 가풍(家風)이 자손들에게 면면히 이어지며 지켜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찬송을 지은 권기창(1966-)목사는 후렴마다 "우리가정"이아말로 "사랑과 행복의 안식처"라고 기뻐 노래하며 "대대로 복되게 하심"을 감사한다. 곡을 붙인 문성모(1954-)목사 역시 "할렐루야 우리가정"을 곡의 절정인 가장 높은 음역(音域)에 두고 있다. 우리 명절 분위기에 한층 걸맞게 굿거리장단으로 쓰여 악구(樂句)나 악절(樂節) 끝에 '으이' '좋다' '얼시구' 같은 추임새를 간간이 넣어준다면 더욱 흥을 돋우리라.

여호수아는 세겜에 모인 백성에게 한 고별설교에서, 그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종 되었던 이집트에서 구출해내신 그 때까지의 일을 날날이 열거하고,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수 24:15)"란 말을 남기며 후대에도 기억하고 지킬 수 있도록 기념석(記念石)을 세웠다.



김명엽
울산시립합창단 상임지휘자
교회음악아카데미 원장